

##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명 직** 목사님(1890.12.2-1973.3.30)은 한국성결 교회의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 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성결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란에 본지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그분의 설교를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정리한 것을 통해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年甲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니” 하였고, 빌립보 3장 6절에는 율법의 의(義)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변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범한 죄에 대한 변민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내적(內的)인 생활고의 갈등에서 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선행(善行)과 내적인 생활과의 상반된,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마는 그렇지 못함으로 변민하는 중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성현(聖賢)이나, 어느 종교가(宗教家)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교(儒教)의 어느 학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고, 또 어떤 학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다 하며,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

한데 물욕(物慾)이 교폐(交弊)되어서 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물질은 본연적(本然的)으로 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성(本性)이 악한 것을 난행고행(難行苦行)으로 교정(校正)하려 하였고, 물욕(物慾)으로 악해진 것을 수양과 극기로 개선(改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지혜로운 듯하나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도 정곡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성 이외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신학 연구로 써도, 추리로도 아니었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수양이니 도덕이니 하며 행선적(行善的) 종교를 행하기를 장려합니다.

1세기 말에 노스틱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노스틱이란 뜻은 지혜라는 의미인데, 저들은 금욕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로써, 결혼도 하지 않고 육식도 하지 않고 극기에 힘썼으나, 저들은 마음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천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행고행이나 극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육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천성은 악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죄에 속하면 불의의 병기(兵器)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兵器)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딤후 4:4).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한 것은 인성(人性)의 본체(本體)도 아니고, 물질(物質)의 본체(本體)도 아니고, 한 독립적(獨立的) 존재(存在)로서 인성(人性)을 악으로 인도하며, 사람의 육체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역사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가르쳐 “마귀의 일” 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에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의 대종가(大宗家)입니다.

어느 때부터 범죄하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에 ‘에덴’에 죄가 들어가서 인간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역사는 창세초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화신(化身)인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

**전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행고행이나  
극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육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터,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때부터 마귀의 독이 입을 통하여 뱃 속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통하여 몸에 퍼졌고, 뱀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귀를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가 인간의 혈관에, 또는 심령에 불어넣은 죄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얻으려고 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만 실상은 사약(死藥)을 먹은 것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겨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의 심령은 죽게 되었습니다(엡 2:1). 죄는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마귀는 이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심산으로 사람의 심령에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귀의 일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는 사역이라 하였습니다.

###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유전**

인간의 죄의 내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입산수도니 난행고행(難行苦行)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내 마음 속에 있고, 또 유전되어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조의 피가 자자손손에게 전래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피의 유전이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인류는 모두가 한 피로 지어졌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전 인류는 동일한 죄 아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마음으로 유전되고 피로 도전(導傳)되어서 일종의 고유성(固有性) 같이 되었습니다. 고로 다윗은 모태로부터 죄가 있었다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의 죄는 흰 밀가루를 반죽할 때에 색소를 넣어 반죽하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곧 마음으로 전해지고 피로 전해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주사 맞은 독소가 지금도 여전히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였

고,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격한 말씀같으나 사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전래(傳來)되고 있는 독사의 독을 증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창세 이후 1000년 후에 것처럼 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성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물 근원에 물감을 뿌리면 그 물감 색이 흘러가 하류를 물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 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마는 나면서부터 죄악으로 인하여 거짓되었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 핫사엘을 주목하여 보다가 우는지라, 핫사엘이 그 연고를 물으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여 장정을 죽이고 유아를 메여 치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네 왕을 죽이고 또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 한즉, 핫사엘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핫사엘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핫사엘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악이 숨어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이기 5분전까지도 그 아들을 죽일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 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죄가 그 마음 속에 숨어있는 죄는 보균환자(保菌患者)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균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될 정도이면 이미 그 병은 중태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죄가 악한 형색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온 인류는 죄라는 균을 품고 있는 보균환자들입니다.

##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

### 1. 회의(懷疑)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의심하도록 유혹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의심하게 합니다. 이로써 회의론자

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무신론(無神論) 등에 속한 학설(學說)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 2. 교만

마귀의 특질은 교만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태초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지위를 다투다가 쫓겨나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교만함으로써 자궁하여 마귀의 죄로 정한데 빠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서는 예수를 찾아볼 수 있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만 좀 잘 해도 교만하고 지식만 좀 있어도 교만하고 성경만 좀 알아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더 진보(進步)하지 못하고 퇴보(退步)하게 됩니다. 이 교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3. 핑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내가 벌

거벗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함으로,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 하더냐” 하시니, 아담은 그 책임을 자기 처에게 전가시키고 또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부정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은 가인은 아우를 쳐 죽이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하고 핑계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오늘도 부정직한 사람들은 친구간에, 사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정직의 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 4. 분노(忿怒)

성을 잘 내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기뻐 받으시므로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우가 은혜 받는데, 형인 가인이 왜 그렇게 화를 내야 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처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 중에 ‘핀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한국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핀

다선교사가 하루는 그 부인이 화를 내고 있을 때에 거울을 가져다가 그 얼굴을 비춰보이면서, “당신 얼굴을 좀 보라” 하니, 화냈던 부인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고 웃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분노는 죄의 발작입니다.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 5. 증오 (憎惡)

이 증오(미움)는 가인의 피로 유전된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감정이 발달하여 살인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전도집회가 있었는데 한 전도자가 설교를 마친후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한 청년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도자가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서 회개와 구원받을 것을 권면하니 청년이 품에서 비수를 꺼내 보이면서 그 날 어느 친구와 다뤘는데 이론으로는 그 상대를 당할 수가 없어졌는데, 그를 미워하여 앙심을 품고 친구를 죽이려 가는 도중에 시간이 일러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인의 피를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도 개종하기 전에는 살인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 6. 시기 (猜忌)

미움의 동기는 시기이며 시기는 살인까지도 합니다. 시기로 서로 무고하고, 악선전하고, 작당하고 떠듭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역사에서 시기에 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중략)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가진 흉계로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사울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기 전에는 천국도 영생도 부활도 예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울의 속에 있던 시기의 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9).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는 현미경입니다.

**생**